

칼럼

새로운 변화에 깨어 있는 건설 기술인이 되자



최 승 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우리나라의 경제는 건설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해 왔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복지 사회를 위한 여러 좋은 제언들이 나왔으나, 건설이야말로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건설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절대 필요조건인 인프라와 주거시설 공급 외에도 오일 쇼크 등 세계적 위기 때마다 달러를 벌어들여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다.

건설 기술인들이 해외에서 이뤄놓은 훌륭한 건설 성과물들은 세계 속에 건설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평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페루 헬기 참사에서 보듯이 우리 건설 기술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 기술인들이 곧 대한민국의 국가 홍보대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 건설시장에서 최고의 건설 기술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 기술인들이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기술력을 향상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술인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겠다.

지난 5월 30일 총 80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신도시 건설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해외 수주 5,000억 달러 시대를 맞이하였다. 지난해 말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개막된 데 이어 맞이한 해외건설 수주 5,000억 달러 시대의 도래는 우리 산업계가 이룬 또 하나의 쾌거라 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 건설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어

앞으로의 실적 확대도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건설 기술력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라 건설산업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건설시장의 창출에 힘써야 하며, 국외적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국내의 사회적 목표가 양적 팽창이었다면 경제 성장의 안정화 시기로 평가되는 현재는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기업과 건설 기술인들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수한 기술 축적과 고도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건설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아간다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그동안 플랜트 위주로 해외건설 수주가 급증하면서 해외건설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이 플랜트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토목 등 타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도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설과 관련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집중 양성할 필요도 있다.

현재 건설산업의 현실이 건설 기술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회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기도 하다. 새로운 건설산업 혁신은 품격과 책임감을 갖춘 우리 건설 기술인들의 인식 변화와 이를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알고, 새로운 변화를 즐길 줄 아는 깨어 있는 건설 기술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CERIK